



**신기한 생태체험**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시 남구 양곡동 체험학습장에서 어린이들이 생태체험을 하고 있다. 남구는 당초 이곳에서 '제3회 녹색문화산업전'을 열 계획이었으나 예산절감을 위해 행사를 취소하는 한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위한 생태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평균 3억원·전남 9억원 일부 시의원 불성실 신고 논란

6·2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광주·전남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이 지난달 31일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자관보(gwanbo.korea.go.kr)를 통해 강운태 광주시장과 장만재 전남도교육감, 광주·전남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78명이 7월1일을 기준으로 등록한 재산 내용을 공개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공개대상 공직자 24명의 평균 재산은 3억1000여만원이었고,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을 포함해 전남지역 공개대상 공직자 54명의 평균 재산액은 9억4800만원으로 나타났다.

### 광역·기초단체장·교육감 재산 총액

강운태 광주시장	1,421,400
장만재 전남도교육감	1,750
최영호 남구청장	33,620
민형배 광산구청장	173,616
임성훈 나주시장	8,312,343
김충석 여수시장	2,248,399
김양수 장성군수	221,826
안병호 함평군수	502,461
이동진 진도군수	637,807
최형식 담양군수	268,156
허남석 곡성군수	1,191,877

(단위:천원)

### 6·2 지방선거 당선 공직자 재산공개 임성훈 나주시장 83억으로 최고 도의원 상당수 수십억대 재산가

◇강운태 광주시장 재산 감소=이날 공개된 강 시장의 재산은 14억 2000만원 이었다. 지난 5월 후보등록(지난해 12월 말 기준) 당시 18억 9000만원 보다 무려 4억7000만원이 감소했다.  
강 시장의 재산 감소 사유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 출마에 필요한 기탁금과 선거비용 지출, 생활경비 등의 요인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시 선관위가 지난달 30일자로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액 3억8700만원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재산은 9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만재 175만원, 실상은 7억원=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은 종전 신고액 수보다 무려 7억4200만원이 감소한 175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는 7월1일자로 작성된 것으로 지난달 말 받은 선거비용 보전액 13억800만원이 빠진 액수여서 빚을 갚을 경우 원래 부동산 등은 그대로 남아 실제 재산은 7억원 상당이 된다.  
◇광주·전남 기초단체장도 감소=재력가인 임성훈 나주시장과 김충석 여수시장의 재산이 6·2 지방선거 이후 각각 12억원과 4억원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산이 공개된 전남 기초단체장 7명 중 임성훈 나주시장이 83억1200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임 시장은 선거 입후보 당시 신고한 95억2500만원 보다 12억1300여만원이 감소했지만 6·2 지방선거로 새로 당선된 전국 기초단체장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김충석 여수시장도 선거 입후보 당시 26억9000만원을 신고했으나 이번에는 22억4839만원을 등록해 4억여원의 재산이 줄었다. 김 시장은 특히 신고한 토지건수만 대지와 일야, 도로 등을 포함해 무려 61건(14억원)이나 돼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허남석 곡성군수는 11억 9187만원을, 이동진 진도군수는 6억 3780만원을, 안병호 함평군수는 5억 246만원을, 최형식 담양군수는 2억 6815만원을, 김양수 장성군수 2억 2182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최영호 남구청장이 3352만원을,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1억735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광주시의원 재산 롤러코스터=광주시의원 21명의 재산 총액은 58억 2300여 만원으로 평균 2억7700여 만원으로 나타났다. 윤봉근 시의회 의장은 2억9600여만원을 신고했다. 시의원 중 임동호 의원이 18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현애 부의장은 마이너스 19억1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임 의원은 6·2 지방선거 이후 재산이 무려 4억원 이상이 증가했다. 또한, 홍인화 의원은 2억2200만원을 신고해 지난 5월 지방선거 후보 등록 당시에 비해 1억1000여만원이 증가했다. 이은방 부의장과 조영표 의원 또한 각각 5000여만원, 4000여만원 가

량으로 후보 등록 때보다 재산이 많은 폭으로 증가했지만 서정성 의원은 무려 9억5000여만원이 감소해 '불성실 재산 신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상필 시의원은 신고를 연기했다.  
◇전남도의원, 수십억대 재산 가에서 채무자까지=전남도의원 중에서 임영규 의원이 51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아 전국 광역의원 중 10위에 올랐고, 병현관(40억5500만원), 서욱기(39억7400만원) 의원 등이 30억원 이 넘는 재산가로 나타났다.  
이밖에 김인숙(한·비례)의원이 19억3400만원을, 정민근(여수 4)의원이 17억7700만원을, 박종기(신안 2)의원이 16억7700만원을, 기도서(순천 4) 의원이 13억5200만원을 신고했다.  
최고 재력가인 임 의원은 토지와 건물 등이 117건에 17억원에 달했고, 예금과 유가증권, 회원권 20여억원, 본인 회사 출자분이 10억원에 이르렀다. 반면 김효남 의원은 금융기관 채무가 4억30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산 합계가 마이너스 99만원을 신고해 가장 적었다.  
◇눈길 끄는 '이색 재산'=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원은 약 5억원 상당의 자동차와 굴삭기 등 건설기계 1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충석 여수시장도 어업용 선박 5척을 비롯한 총 1억6600여만 원의 자동차와 건설 기계를 등록했다. 박철홍 전남도의회 의원은 2600만원 가량의 서양화와 조각작품을 신고했다. 윤문철 전남도의회 교육의원과 배우자 2억1000여만원의 골프와 콘도 회원권 세 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공개 재산 검증기준 대폭 강화... 허위신고 엄단

지난달 31일 재산이 공개된 6·2 지방선거 출신 공직자들은 과거보다 훨씬 혹독한 검증과 심판을 받는다. 11월 말까지 이들의 재산을 심사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 때 더욱 엄격해진 잣대를 들이대고 허위 신고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재산을 누락 신고한 선출직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가장 엄한 처분인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누락 재산 기준이 5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그 다음 단계인 경고 및 시정 조치 대상이 되는 누락금액은 6000만원 이상~5억원 미만에서 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으로, 보완명령 조치 대상 금액은 6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각각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이번 재산 공개분부터 금융기관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재산인 '비

# “가격하락 못 막을 단기 미봉책”

## ‘8·31 쌀 대책’ 전남지역 농민 반응

### 北지원 등 재고쌀 없앨 근본 대책 필요

정부가 내놓은 '쌀값 안정 및 쌀 수급 균형 대책'은 올 수확기 예상 수량을 초과해 공급되는 쌀을 전부 사들이고 과잉 유통을 차단하면서 재고로 쌓아놓았던 묵은 쌀을 긴급 처분하는 한편,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게 골자다.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쌀 소비 감소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쌀값 하락을 막는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단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불안감 여전=정부 대책은 크게 ▲올해 수확기 쌀 시장 격리 ▲재고 처분 ▲쌀 재배면적 감축으로 나뉜다. 하지만 현재 쌀 재고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쌀 가격 하락을 막을 것으로 확실하는 농민들은 많지 않다.  
전남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전남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6000여 달한다. 여기에는 약성 재고물량인 2005년 생산분이 5만3000t 포함돼 있다. 또 올 생산량 88만 가운데 51만9000t도 공공비축(9만)과 농협(28만8000t) 등을 통해 매입돼 창고로 보내지게 돼 그만큼 쌀을 쌓아둘 창고 공간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부양곡 창고의 경우 보관능력이 58만2000t인데 반해 현재 수용 가능 용량은 전체의 28.1%인 16만4000t에 불과하고 농협 물량 보관창고도 16만 9000t에 그치고 있다. 특히 수확기인 10월이 되면 기존 재고분에 올해 매입분까지 더해지면 창고에 보관하지 못할 쌀만 9만8000t에 이를 전망이다.  
창고에 쌓이 넘치면서 쌀값도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산지 쌀값의 경우 지난 7월 기준으로 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평균 쌀 출하가격은 3만1475원(20kg 한 포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6781원)의 85% 수준에 불과하다. 농민들의 불안감이

### ■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

올해 수확기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40만~50만 농협 통해 시장 격리</li> <li>• 비 매입자금 지원규모 1조3000억원 증액</li> <li>• 2009년산 재고쌀 추가 격리 검토</li> </ul>
재고 처리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2008년산 구곡 재고 50만 긴급 처분</li> <li>• 쌀가루용 쌀 가격, 밀가루 수준 인하해 최고 3년간 가공업체에 공급</li> <li>• 처분 쌀 둔갑 판매 방지 대책 추진</li> </ul>
쌀 재배면적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부터 3년간 매년 4만ha 논에 타 작목 재배</li> <li>• 2015년까지 2만ha는 매입 농지은행 통해 정부 매입</li> <li>• 전국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전용 규제 완화</li> </ul>

가시지 않는 이유다.  
◇대북 쌀 지원 등 근본적 대책 촉구=내놓아야=정부의 이번 대책이 올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남도와 농민단체 등도 공감하고 있다.  
임영주 전남도 농업식품국장도 “오늘 발표된 쌀 대책은 쌀값을 안정시키고 수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수확하는 쌀과 재고 쌀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구분해 시행해야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농민과 농민단체 등의 목소리다. 단기간 수십만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더라도 재고가 남아있는 만큼 가격 하락세는 잠시 주춤할 뿐 멈추지 않는다는 것. 창고에 쌓아놓았던 쌀이 풀리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 뻔한 만큼 남아도는 쌀을 없애는 방안이 급선무라는 주장이다.  
농민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30만~40만t의 쌀이 북측에 제공돼 재고량을 크게 줄였다는 점을 들어 중단됐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 재고 쌀을 처분하는 한편,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영광군 영광읍 김연배씨는 “힘들게 농사짓는 만큼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대북지원 재개 등 농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미용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 광주 성형외과 의사회

▶ 성형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위정촌 의대의 정형외과

▶ 성형외과 전문의의 철저한 구멍발발

▶ 성형외과 전문의의 철저한 구멍발발

▶ 성형외과 전문의의 철저한 구멍발발

<p><b>태광빌 성형외과</b> ☎ 226-8895 남구서동 2번지 태광빌딩 2층</p>	<p><b>신촌빌 성형외과</b> ☎ 225-0119 남구서동 1번지 신촌빌딩 2층</p>	<p><b>도원빌 성형외과</b> ☎ 384-7890, 6890 남구서동 4번지 도원빌딩 2층</p>
<p><b>SM 빌 성형외과</b> ☎ 378-4114 서구서동 1번지 SM빌딩 2층</p>	<p><b>연세빌 성형외과</b> ☎ 234-0963 동구서동 1번지</p>	<p><b>신원빌 성형외과</b> ☎ 223-9777 남구서동 3번지 신원빌딩 2층</p>
<p><b>김영빌 성형외과</b> ☎ 227-5777 남구서동 5번지</p>	<p><b>메가 성형외과</b> ☎ 232-3800 남구서동 6번지 메가빌딩 2층</p>	<p><b>빌트 성형외과</b> ☎ 224-7300 남구서동 7번지 빌트빌딩 2층</p>
<p><b>신세계 성형외과</b> ☎ 351-1114 남구서동 8번지 신세계빌딩 2층</p>	<p><b>오형빌 성형외과</b> ☎ 366-0003 남구서동 9번지 오형빌딩 2층</p>	<p><b>백문빌 성형외과</b> ☎ 226-3300 남구서동 10번지 백문빌딩 2층</p>
<p><b>화석빌 성형외과</b> ☎ 224-9600 남구서동 11번지 화석빌딩 2층</p>	<p><b>메디빌 성형외과</b> ☎ 352-5252 남구서동 12번지 메디빌딩 2층</p>	<p><b>교토 성형외과</b> ☎ 223-7000 남구서동 13번지 교토빌딩 2층</p>
<p><b>합구빌 빌 성형외과</b> ☎ 383-7185~7 남구서동 14번지 합구빌딩 2층</p>	<p><b>미들리스 성형외과</b> ☎ 363-0075 남구서동 15번지 미들리스빌딩 2층</p>	<p><b>류동빌 성형외과</b> ☎ 234-0009 남구서동 16번지 류동빌딩 2층</p>
<p><b>도복빌 성형외과</b> ☎ 228-6200 남구서동 17번지 도복빌딩 2층</p>	<p><b>사한성형외과</b> ☎ 261-3650 남구서동 18번지 사한빌딩 2층</p>	<p><b>원자빌 성형외과</b> ☎ 222-0222 남구서동 19번지 원자빌딩 2층</p>